

교섭속보

- 주 1. 정년연장, 신규채용
- 요 2. 고정OT 월 20시간
- 요 3. 특별상여금
- 구 4. 노동조합 활동 보장

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이 현 우 / FAX(031)680-6865 / 발행일 2026년 9월 16일(수) / 제 10호

11차

◆ 임금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5일(화) 10:00 ~ 10:15 평택공장 본관회의실

◇ 참석

- 노측 : 이현우 교섭위원 외 9명
- 불참 : 김병철 교섭대표, 정성수 교섭위원
- 사측 : 김현욱 교섭대표 외 7명
- 불참 : 없음
- 사회 : 이성호 교섭위원 (노측)
- 차기교섭 : 실무 논의

◆ 단체협약

◇ 교섭 일시 및 장소 - 2026년 9월 15일(화) 12:30 (실무교섭)

- 임금 교섭 주요 내용 -

- 노 : 벌써 11차 교섭이다. 회사측 안 제시 바란다.
- 사 : 앞선 교섭에서 밝혔듯이 먼저 노사간 의견차를 좁히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간 논의가 이어져 온 점을 감안하여 회사안을 준비했다.
- 노 : 금일 회사측이 제시한 안은 기본급 위주의 안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조합이 요구해 온 고정 OT, 월급제 수당이 제시안에 반영되어야 올해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 될 것이다. 또한 연말성과급도 과거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임금교섭에서 다루자.
- 사 : 고정OT는 수용이 어렵다. 성과급도 연말 경영성과를 보고 지급해 온 만큼 예측할 수 없다.
- 노 : 안된다 하지말고 우리 상황에 맞게 고민하면 된다. 많은 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미 교섭에서 성과급을 합의하고 있다. 고정OT는 월급제 시행 후 10년이상 지난 시점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보완하는 차원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회사는 실질임금 감소에 부정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 근무형태 변경, 특근 감소로 인한 급여 감소 역시 실질임금 감소다.

회사 임금 제시안(1차)

1. 기능직 기본급 89,000원(월), 호봉승급분 31,823원(월)
2. 안전실천 및 품질향상 동참 특별격려금 : 150만원
3. 성과급 : 200만원

사상 최대 실적 뒤에 숨은 초라한 숫자

11차 임금교섭에서 회사가 드디어 안을 내놓았다. 요구안을 전달한 지 두 달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열 번의 자리에서 ‘안이 없다’는 말만 들어온 조합원들은 이제야 회사의 진짜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그 내용을 확인한 지금,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 두 달을 끌고 끌어 내놓은 것이 고작 이것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보다도 적은 인상액, 이것이 사상 최대 실적의 대가인가

회사는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실적을 내고있다. 그 실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올해, 회사가 조합원에게 내민 숫자는 작년보다도 적다.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이어나가는데 인상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이 셈법을, 대체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가. 정몽원 회장의 지난해 연봉이 105억원으로 재계 10위에 올랐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총수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 보상이 돌아가면서, 현장에서 실적을 만들어낸 조합원들에게는 작년보다도 못한 숫자가 돌아온다.



회사가 되풀이한 두 마디

조합은 고정OT와 월급제수당이 반영되어야 임금교섭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그동안 별도로 다뤘던 연말성과급도 올해부터는 임금교섭에서 함께 다루자는 요구를 제시했다. 회사의 답은 짧았다. 고정OT는 수용이 어렵다고 했고, 성과급은 연말 경영성과를 봐야 알 수 있어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달을 끌어온 교섭에서 나온 답이 결국 '어렵다'와 '모른다'였다.

이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것은 안이 아니다. 두 달 동안 열한 번의 자리에서 나온 요구 중 상당수가, 회사의 답변지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취급됐다. 금속노조 만도지부는 이 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회사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기본급 인상안을 다시 제시하고, 성과급의 지급 시기와 규모를 명확히 밝히며, 고정OT와 월급제수당 요구에 대해서도 성실히 답해야 한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도 그 몫을 나누는 데 이토록 인색한 회사를, 어느 구성원이 애사심을 가지고 근무에 성실히 임하겠는가.